

우리(아시아연합감리교연맹(New Federation of Asian American United Methodists, 이하 NFAAUM)는 다양한 신학적 스펙트럼을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 목회자와 평신도 및 교회들과 연대한다.

오순절의 정신을 지닌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풍성한 연합감리교 전통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신념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회중이 우리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보수적, 전통적, 자유주의적, 진보적인 여러 모습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단 하나의 신학적 범주로는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기에, 교회와 지구촌에 기여하며, 특정한 상황에 기반을 둔 우리 아시아계 미국인의 폭넓은 신학적 입장도 존중받기를 원한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감독들과 감리사들이 최근에 내린 몇 가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몇 차례 파송 과정은 아시아계 미국인 교회의 문화적, 신학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대중의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면,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김낙인 목사와 <밸리 연합감리교회>의 류재덕 목사 그리고 <샌디애고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이성현 목사, 뉴저지 웨인에 소재한 <베다니 교회>의 이기성 목사를 재파송하지 않기로 한 결정 등이 그것이다. (참조: <https://www.umnews.org/en/news/protests-mount-against-cal-pac-bishop>)

우리는 이러한 최근의 결정들이 우리의 목회자 동료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목회자들의 파송에 관련해 신학적 리트머스 시험지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감독과 감리사가) 파송을 결정할 때, 연합감리교회 내에 신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장점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협의적인 절차를 통해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윤리적 노력을 반영하는 파송 시스템과 절차의 중요성도 확인한다.

우리는 이 파송 기간에 아시아계 미국인 목회자와 회중을 위해 끊임없이 대변하고, 우리의 감독들과 감리사회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말할 것을 서약한다.